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넘치는 이익은 마음을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써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412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0월 23일) 2022년 11월 16일 수요일



이태원 참사 애도와 진상규명 위한 오체투지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들과 연대자들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 · 부상자 쾌유와 진상규명 및 안전세상 발원 오체투지' 시작을 알리며 11월 9일 서울 조계사를 출발했다. 이들은 사흘 간 조계사부터 이태원역 참사 현장까지 오체투지를 진행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오체투지로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희생자 가족들과 많은 국민의 분노와 슬픔 그리고 그 고통이 조금이라도 녹아내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거리에 몸을 눕히겠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희생자 중심의 진상규명과 희생자 가족을 위한 공간을 촉구했다. 〈현장 기사 3면〉

글=임은호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종단 법익 증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 첫 개원…조계사서 개원식

종정예하 "화합으로 소통" 당부
18대 종회 전반기 원 구성 완료
전반기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비구 무경 외 81명은 중앙종회의원에 취임함에 있어 불조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 종헌종법을 준수하고 종단과 사부대중의 법익을 증진할 중앙종회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삼보전에 맹세합니다."

조계종 제18대 중앙종회가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서 '제18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봉행했다. 이날 개원식에는 원로의장 학산 대원 대종사와 총무원장 진우 스님, 호계원장 보광 스님, 포교원장 범해 스님을 비롯해 77명의 중앙종회의원들이 참석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는 학산 대원 대종사가 대독한 법어를 통해 화합을 통한 소통을 강조했다. 성파 대종사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화합을 으뜸으로 하며, 논의하는 사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가 없이 모두가 합의하는 것을 화합이라고 한다"며 "비록 화합하는 과정이 쉽지 않다고 해도 소통 · 협의해 종도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중앙종회는 교구본사에서 원만하게 정진한 능력과 원력을 인정받은 스님과 직능분야에서 전문성을 인정받은 스님들의 모임"이라며 "종회의원 스님들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전문성과 능력을 발휘해 종단 발전의 초석을 놓길 바란다"고 설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개원사를 통해 종단 대의기구이자 입법기구인 제18대 중앙종회가 개원한 것을 축하하며 종단 집행부 사업에 대한 원활한 협조를 당부했다.

진우 스님은 "반야의 지혜로 종도들의 의사를 대변해야 하는 막중한 책무를 맡아주신 18대 중앙종회의원들께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4년간 우리 종단의 중추로 종단을 바로 세우는 입법과 종책 생산에 매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제37대 총무원 집행부는 제226회 중앙종회 정기회를 맞아 불기2567년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예산안과 대종사 명사법계 특별전형 동의의 건, 교육원장 선출의 건 등을 제출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종단 집행부가 열의를 가지고 업무에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11월 9일 조계사 대웅전서 '제18대 중앙종회 개원식'을 봉행했다. 사진은 개원식 후 기념촬영 모습.

개원식을 마친 제18대 중앙종회의원들은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으로 이동해 제226회 정기회를 개식하고 회의에 들어갔다. 정기회는 81명의 의원 스님 중 77명이 참석해 성원됐으며, 전반기 원 구성에 들어갔다.이날 전반기 중앙종회의장에는 5선 의원인 주경 스님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주경 스님은 선출 직후 인사말을 통해 원만한 의정활동을 위해 공정하게 의장 직무를 수행할 것을 약속했다.

주경 스님은 "중앙종회는 불법홍포와 종단 발전의 중차대한 책무를 갖고 있고, 그에 따른 역할과 기능이 있다. 의장으로서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성심을 다해 돕겠다"고 밝혔다.

이어 "경허 스님의 수선결사와 성철, 자운 스님의 봉암사 결사는 위기를 극복하고 근현대 한국불교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 이제는 새로운 사부대중 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면서 "그런 의미에서 상월결사는 진취적이고 고무적 역할을 하고 있다. 중앙종회도 위기를 극복 · 해결하는 데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수석 · 차석부의장에는 무관 스님과 법원(직할) 스님이 각각 만장일치로 선출됐으며, 중앙종회 사무처장에는 17대 중앙종회 사무처장을 역임한 우봉 스님이 재선출됐다.

8개 상임분과위원회 구성도 완료됐다. 총무분과위원장에는 오심 스님이, 교육분과위원장에는 덕현 스님이, 포교분과위원장에는 정운 스님(비구니)이 각각 선출됐다. 재정분과위원장에는 설암 스님이, 호법분과위원장에는 재안 스님, 법제분과위원장에는 심우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새로 개설된 문화분과위원장은 종봉 스님이 선출됐다. 인사심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원경 스님이 선출됐다. 〈관련 기사 2면〉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에 혜일 스님 만장일치 선출

중앙종회 정기회서…"출가 인연 확대" 소감

조계종 제9대 교육원장에 혜일 스님이 선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주경)는 11월 9일 제226회 정기회에서 제9대 교육원장으로 혜일 스님을 만장일치로 선출됐다.

선출 직후 신임 교육원장 혜일 스님은 "모자람이 많음에도 교육원장으로 선출해주셔서 감사하다"며 "부처님 가르침을 바탕으로 승가의 위상과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출가의 인연을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견 스님을 은사로 출가한 혜일 스님은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0년 범어사에서 자운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14 · 15 · 17대 중앙종회의원, 총무원 기획실장, 문화부장, 종립학교관리위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성남 봉국사 주지를 맡고 있다.

제9대 교육원장으로 공식 취임한 혜일 스님은 11월 1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교육원장 집무실에서 신임 교육부장에 지우 스님을, 교육국장에 정관 스님을, 연수국장에 지만 스님을 잇달아 임명하며 인사를 단행했다.

11월 10일 교육원 인사 단행
교육부장 지우 스님 등 임명

임명장 수여 직후 혜일 스님은 "출가하신 분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살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교육원의 임무"라면서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지만, 출가자가 감소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를 해결할 수 있도록 교육원 집행부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장 지우 스님과 교육국장 정관 스님, 연수국장 지만 스님 모두 본사 등에서 여러 종무행정을 수행하시며 능력이 검증된 분들"이라면서 "앞으로 승가교육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신임 교육부장 지우 스님은 법원 스님을 은사로 1991년 사미계를, 199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을 하고 동국대학교 대학원 선학과서 석사를 수료했으며, 동화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과 자비선사 초기불교 승가대학원을 졸업했다. 16 · 17대 중앙종회의원과 동화사 총무국장, 관오사, 보현사 주지도 역임했다.

신임 교육국장 정관 스님은 흥선 스님을 은사로 1999년 사미계를, 2005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범어사승가대학과 직지사 불전한문승가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직지사 총무국장을 역임했다. 현재 상주 용흥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임 연수국장 지만 스님은 본해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사미계를, 2010년 구족계를 수지했다. 중앙승가대를 졸업했으며, 대구 용문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11월 9일 조계종 중앙종회에서 제9대 교육원장으로 선출된 혜일 스님은 10일 교육원 인사를 단행했다. 사진 왼쪽부터 연수국장 지만 스님, 교육원장 혜일 스님, 교육부장 지우 스님, 교육국장 정관 스님.



특집 시방세계 5면
상월결사 3주년

사찰음식 Korean Temple Food

2022년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 수강생 모집

신청 안내

신청 방법
2022.11.21(월)까지
※광주 증심사 : 2022.11.11(금)까지

신청 방법
이메일 ye_ppi@templestay.com
팩스 02-733-9928

참가비 무료

문의 02-2031-2052

안내사항
1) 사찰당 최대 3인 이내 접수 가능
2) 사찰음식 소임자 교육은 연 1회(1인 기준) 가능
3) 정원 조기 마감 시 접수 마감일 이전에 종료될 수 있음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문화사업단 Cultural Corps of Korean Buddhism

교육 안내

학습 목표 • 사찰음식 소임자(후원)의 역할, 자세 이해 및 마음가짐 확립
• 사찰음식 소임자의 조리기술 이해 및 향상

교육시간 1박2일형 / 당일형

교육내용 • 사찰음식과 공양간 소임의 이해
• 계절별 및 의례 관련 사찰음식 등

교육 방법 • 대면 교육(당일형, 1박2일형)
• 시연 및 실습

교육 일정 하반기(11월 중순~12월 중순)

지역	장소	날짜(요일)	강사	교육형태
서울	향적세계	12/6(화)	홍승스님	당일교육
		12/12(월)	여거스님	
경기/강원	수원 봉녕사	12/8(목)	여거스님	
영남	대구 동화사	11/27(일)~11/28(월)	동희스님	1박2일 교육
		12/7(수)~12/8(목)		
호남	장성 백양사(천진암)	12/15(목)~12/16(금)	정관스님	
	구례 화엄사	12/13(화)~12/14(수)	홍승스님	
	광주 증심사(빛고을사찰음식체험관)	11/14(월)~11/15(화)	지원스님	1박2일 교육(비숙박)

2022년 사찰음식 소임자를 대상으로
사찰음식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찰 전통 식문화의 보존과 계승을 위하여
사찰음식 소임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합니다.

